찬양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1.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셋째,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때 일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넷째,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삶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함께 나누어 봅시다.